



동방 경제 포럼 소식

동방경제포럼 참가한 투자자 중에 75%가 러시아 투자들이라고 유리 트루트네프 전권대표가 언급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동방경제포럼에서 체결 예정 계약 총 금액은 9000억 루블을 초과하며 곧 1,5조 루블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였다. 《블라디뉴스-인포》

사할린 주는 동방경제포럼에서 17개의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 중에 국내외 파트너들이 농업, 관광, 교통, 의료, 스포츠, 에너지, 무역, 천연가스석유단지와 같은 분야에서 체결될 계약서들이다. 투자 프로젝트는 도매집산지 건설을 비롯해서 어선조립공장, 코르사코프 도시 항구역 및 계류장 건설 등의 프로젝트들이다. 《Mfd.ru》

공익시설개선진흥재단은 동방국제포럼에서 공익시설개선을 위한 최첨단 에너지 절약기술과 시설 적용 및 활용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gkh64.ru》

신조 아베 일본 총리의 방문을 앞두고 특별히 출판된 책은 동방경제포럼에서 공개될 것이다. 이 책에는 러시아 극동국립대학교,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 국제경제및국제관계연구소의 학자들 그리고 일본 여러 대학교의 학자들이 쓴 학술논문이 실려 있다. 《뉴스@Rambler.ru》

동방경제포럼 문화 행사로 연해주연극극장에서 메딘스키 러시아 문화부 장관의 작 "스테나"(벽) 연극이 개최된다. 연극의 배경은 1609-1611년에 일어났던 스몰렌스크읍성을 지키기 위한 항전하는 전투이다. 이번 공연에는 러시아 연극상 '황금마스크' 수상자를 포함한 모스크바연극단의 배우들이 무대를 선보일 것이다.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

극동 지역 소식

내년에 러시아 직접투자가금은 극동개발기관에 추가로 110억 루블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극동투자프로젝트지원용으로 쓰게 될 거라고 유리 트루트네프 전권대표가 발표했다. 《News.ykt.ru》

러시아 정부는 3개의 극동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인프라 지원안을 승인했다. 하바로브스크 주에서는 제재목과공학목재제작 프로젝트가 실시되며 사하 공화국에서는 '타른'이라는 광산개발&처리공장 건축 및 운영 프로젝트를 구현할 거며 아무르강 연안 지역에서는 식물재료생산운송보관단지 및 종합식물육종센터를 건축할 것이다. 민간투자금액은 180 억 루블이며 국가 지원금은 20,1 억 루블이다. 《리아 노보스티》